

4월13일(월)

제목: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찬송:527장/요한복음6:41-51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 수군거렸다.(41절) 그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다.(42절) 그들에게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어찌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라고 믿는 그들의 생각을 정정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까닭을 다른 방편으로 설명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44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한 결과라고 하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보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을 심어 놓으신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즉, 믿음을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4월14일(화)

제목: 예수님은 참된 밥이며 음료수이다

사도신경/찬송:270장/요한복음6:52-59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주장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52절)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53절)과 영생과 부활(54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는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수라 하셨다.(56절)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다. 즉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삶과 인격을 예수님으로 도배하라는 뜻이다. 그를 성경에서 나타내는 한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신학적 논쟁의 주제로 삼거나 하지 말고 나 자신의 혈맥 속에 예수님을 수혈해서 나의 전 인격을 예수님화(化)하라는 뜻이다. 나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배부르게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구주로 받아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정신과 말씀을 매기 식사와 음료수처럼 받아드리라는 말씀이시다.

4월15일(수)

제목: 승천의 의미

사도신경/찬송:135장/요한복음6:60-62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수라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난해한 반응을 보였다.(61절) 물론 예수님도 자신의 설교 내용을 제자들이 믿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 이 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62절)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 승천의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이해하고 믿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게 되신다. 제자들은 이 때 비로소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하나라도 공수포가 안되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증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성경의 그 밖의 모든 약속과 내용들이 참임을 보증하는 사인(sign)이다.

4월16일(목)

제목: 엉터리 교사를 조심하세요

사도신경/찬송:375장/요한복음6:63-65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고 하셨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약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면 배탈만 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들으라는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을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셨다.(64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엉터리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성서의 문자적인 의미를 비유로 해석해서도 안되고, 성서의 상징과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 교회주변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성서를 신령하게 푼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성서 해석은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엉터리 해석자들을 따라가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

4월17일(금)

제목: 예수님이 매력적일 때만 따르는 자들

사도신경/찬송:314장/요한복음6:66-71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무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떠나가기 시작했다.(66절) 이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67절)고 묻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68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였던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푼 떡 맛을 본 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음을 직감하였다. 그들은 만사가 잘되어갈 때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빵을 줄 때만 충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매력적일 때만 따르려 하였다. 사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 또한 없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일 매일 충성하라고 요구하신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짊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 십자가를 어려워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없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